

축산업계 동향

78년도 종계도입방침 발표

1. 도입세대 : 원종계 (G.P.S) 종 종계 및 (P.S)

2. 도입수량 : (단위 : 수)

구 분	원종계(G.P.S)	종 계 (P. S)	계
산란계	6,000	80,000	86,000
육용계	12,000	80,000	92,000

* 단, 숫(ง)계에 대하여는 상기 수량의 20% 범위내에서 별도 수입 수량 허용

3. 품종(계종) 수량 및 대상자 선정

가. 원종계 (G.P.S)

(1) 수입대상자 : ○ 국립종축장

- 현존 원종계 및 순계 보유농장 우선
- 신규계통의 품종을 새로운 농장이 수입하고자 할 때는 C.C 종란을 우선 수입, 국내 검정을 필한 후 각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수입 허용.

(2) 대상계종 ○ : 과거 도입되어 능력검정

결과 성적이 우수한 계통

- 신규계종을 도입코자 할 시는 수입전에 능력검정을 필하고 검정 성적이 우수할 시 수입 허용.

(3) 수량 배정

(가) 국립종축장

- 산란계, 육계 각 2 계통씩
- 계통당 1,000수 규모 수입 (국립종축장분 별도 수량 배정)
- 국립종축장 수입 희망 계종

(나) 순계 농장 (P.L)

- 수입 수수의 30% 범위내에서 우선

부여

(다) 원종계 (G.P.S) 농장분 70% (P.L)
농장 요구시 포함)

(4) 기타 사항

(가) 수입자는 국립종축장에서 수입자가 도입코자 하는 계통의 품종에 대하여 수입코자 할 시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대행해 주어야 함.

(나) 양계협회로 부터 결정된 수입대상자가 수입대상 물량을 일정 기간내에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수입 물량을 타 농장에 전배포록 할 것이며, 수입하지 않는 농장에 대하여는 향후 수입을 불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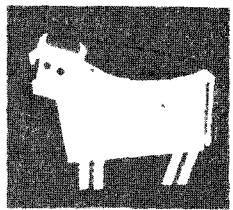
(다) 도입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는 탐색 경제 능력 검정 성적순과 등록 원종계의 보유 수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할 것.

(라) 다만 대한양계협회장은 본 종계 수입에 있어서 두산법에 의한 불량추생산과 생산 보고 불성실 이행자는 종계 수입을 제한 추천할 것 (G.P.S, P.S 동일 적용)

나. 종계 (P.S)

(1) 과거 종계를 도입하여 대한양계협회가 실시한 탐색 경제 능력 검정에 출품한 실적이 있는 종계를 우선하여 도입케함.

(2) 신규 도입 종계는 계종당 2,000수 범위내 도입토록 조정하되 국산계 개발 농장이 도입할 경우 우선권을 줌 (난립방지)



(3) 도입된 종제는 맑 경제 능력 검정에 출품하여 검정 받는 것을 의무화 함.

○ 기존 종제—도입종제에서 생산된 실용제를 출품함.

○ 신규 종제—종제 도입시 실용제 종란을 동시 도입하여 출품함.

(4) 기존 및 신규 도입 종제의 허용 비율

○ 기존 종제 80%

○ 신규 종제 20%

단, 신규 도입 희망이 없거나 20% 미만시에는 기존 종제로 조정 수입 허용

(5) 도입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 맑 경제능력 검정 성적순

○ 등록종제 보유 수수 비율로 결정

(6) 도입 대상자중 만일 도입 물량을 배정 받고도 일정 기간(양계협회 결정) 내에 수입하지 않을 경우는 타 농장에 전배 조치하고 향후 수입을 불허용 함.

4. 도입요령

○ 수량, 품종, 대상자 선정은 '78 종제 도입 기본 방침에 의거 대한양계 협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추천분에 한하여 당부 검토 승인(수입 추천)한다.

한국축산학회, 78년 춘계 학술발표회 및 임시 총회 성료.

지난 4월29일 경상대학(경남, 진주)에서 한국축산학회(회장: 한인규)가 주최하는 제31회 춘계 학술발표회와 제27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20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술발표회 좌장으로서는 영양사료분야 박종형교수(경상대), 강희신 교수(경상대), 발표자는 번식종육분야: 윤창현 교수(경상대) 이규승 교수(충남대), 그리고 가공 초자분야에는 김병호 교수(경상대), 김영주 박사(축산시험장)가 담당했으며 오후 2시30분부터는 김춘수(KI ST) 박사의 카나다와 호주의 축산연구 및 축산업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특강에 이어 임시총회, 관광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축산 학회는 전 회원이 진지한 자세로 참가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오진양행, 부화 및 사료에 관한 세미나 개최 예정.

E·Holzer Inc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축산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자재 및 기술용역을 취급하고 있는 오진양행이 오는 6월7일(수) 오후 2시부터 세종로에 위치한 미 대사관내 무역관에서 부화 및 Feeding system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날 강사는 E.Holzer의 부사장 Jacques Frocheur씨이며 세미나가 끝난 뒤 간단한 오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창립 7주년 기념식 성료

발족한지 7년만에 회원사 34개 업체로 발전한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길원)는 지난 5월 6일, 무역회관 중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리셉션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70여명의 축산업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길원회장의 인사와 이창

축산업계 동향

구 가축위생연구소 소장 및 이 창립농수산부 가축 위생과장의 축사가 있은 후 리셉션 이 베풀어 졌다.

한국동물약품협회 강습회 개최예정

- 사료첨가제 사용지침에 대한 강습회(6월 14일), 동물약품관리인교육(6월 20일)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길원)는 오는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무역회관 종회의실에서 사료제조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 사용지침에 대한 강습회를 실시하는데 강사는 다음과 같다.

- ① 항생물질 사용규제 경과: 조 태행 (안양 가축위생 연구소 검정 화학과)
- ② 항균물질 사용지침 해설: 이 재진 (안양 가축위생 연구소)
- ③ 사료첨가제에 의한 질병예방: 박근식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또한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안양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백신유통 관계업체를 대상으로 동물약품 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교육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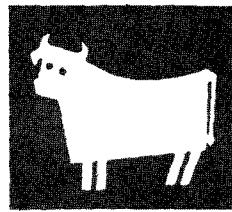
- ① 가축방역과 백신: 이 창구 (안양가축위생 연구소 소장)
- ② 백신유통체계확립: 이 창립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 ③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판매업소 유의점: 차 연호 (안양가축위생연구소)
- ④ 독 질병과 예방: 김 순재 (안양 가축위생 연구소)
- ⑤ 돼지 질병과 방역: 강 병직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美國 사료제조기술 단기코스 연수생 출국

미국 사료제조업체협회(American Feed Manufacturers Ass.)가 10여년 전부터 매년 일본, 구미등지의 사료기술자 및 경영자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사료제조기술 단기코스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최초로 4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동 기술코스는 사료 제조기술에서 관리, 경영에 이르는 세부적인 최신기술을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트레이닝하는 코스로서 이웃 일본과 대만은 오래전부터 계속 참여하면서 사료제조능률 제고에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봉훈씨(롯데삼강사료 생산과장)와 윤정옥씨(진명사료 과장)가 지난 5월 23일, 김 창원박사(KIST)와 이 의선씨(금성사료 부사장)가 26일 출국했는데 이번 코스는 미국 캔스ас 주립대학에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되며 동 연수가 끝나면 미국의 중요 양계장, 사료공장, 양돈장, 목장을 견학하고 7월 초순경에 귀국할 예정이다.

한국사료향미양행, 세미나 개최 - 사료향미소 이용과 가금 및 가축의 기호성에 관하여 -

사료향미소 휘드霓타제조원 한국사료향미양행(대표: 유 창열)은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호텔 사임당홀에서 제 1회 사료향미소(TM) 이용과 가금 및 가축의 기호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의 사료공장에서 생산분야 기술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Agrimericc,



Inc.의 사장W. A. Tribble씨와 극동 담당자 H. M. Thomason씨의 「배합사료에 사료향미 소 이용과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한 발표가 유창열 사장의 통역으로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있었으며 이어 KIST의 김춘수박사와 서울농대 한 인규박사가 실험한 「휘드비타의 자돈 및 부로일러 사료에의 첨가효과」와 「휘드비타첨가에 따른 사료의 미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은 후 진지한 질의응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국립종축장 우량종토분양중.

초식가축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75년 말 프랑스에서 우량종토를 도입하여 확대생산하고 있는 국립종축장에서는 우수한 종토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다 음

품종 : 뉴질랜드화이트 및 캘리포니안종

분양가격 : 70일령 : 1,600원 71-80일령 :

1,900원 81-90일령 : 2,100원 (품종과 성별관계없이 동일함)

분양절차

가. 희망자는 국립종축장 앞으로 분양 신청서를 제출(지정 서식없음)

나. 국립종축장에서 배정, 인수 통보하면 지정일자에 인수

다. 인수장소 : 국립종축장(330-81 : 충남 천원군 성환읍 어룡리, 전화 : 충남 성환 2081~4) 분양시기 : 수시

농수산부, 축산물유통센터설치계획 - 서울, 춘천, 진주에 -

농수산부는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 진흥기금 29억 2천 1백만원을 들여 서울, 춘천, 진주에 대규모의 축산물저장 시설 및 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지역에서 수입쇠고기의 정찰포장판매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축산물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방안」에 의하면

24억 6천 8백만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나 다른 균교지역에 육류 1만톤(쇠고기, 돼지고기, 맷고기 각 3천톤, 예비용 1천톤)을 상시 비축할 수 있는 저장창고와 경남 진주시에 1억 5천 3백만원을 투입, 가축경매장, 도축장, 인공수정소를 갖춘 축산물유통센터 및 춘천에 3억 1천만원을 들여 2개소의 축산물 냉장저장 시설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농협 축산물공판장에 1억 원을 들여 쇠고기 자동포장공장을 신설, 미국으로부터 상반기 말까지 자동포장기 1대를 도입, 수입쇠고기를 비닐로 진공포장하여 축산물 매장을 통해 정찰 판매하기로 했다.

대성미생물, 친선체육대회 개최 - 녹십자 수의약품 종합우승 -

대성미생물 연구소가 주최한 생물학적 제제(生物學的 製劑) 메이커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4월 30일(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시흥군 의왕에 위치한 부곡국민학교에서 개

축산업계 동향

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녹십자수의약품(주), (주) 대성미생물 연구소,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주) 한국미생물 연구소에서 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배구, 탁구, 터치볼등의 종목이 진행되었는데 녹십자수의약품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트로피 및 기념품을 수상했다.

경북, 양축사양기술 및 방역대책강습회

- 5월27일, 농협경북도지부 회의실에서-

경상북도는 도내 양축가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양기술 및 방역대책에 관한 강습회를 본회 경북지부와 대구축협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① 개최일시 : 5월27일(토) 오전10시.
- ② 장 소 : 농협경북도지부 회의실
- ③ 내용 및 강사
 양계사양기술부문 : 오세정(본회회장)
 양계방역대책부문 : 박근식(안양가축 위생연구소)

양돈사양기술부문 : 박동근

한우사양기술부문 : 박항균(경북농대)

한우질병예방및치료 : 김화식(연합 가축 병원)

서울 경기 양계 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장에 윤도진씨

농협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가칭 서울 경기 양계 협동조합 발기인회가 발기인 62명중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2일 오전11시 신문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준비 위원장에 제일 축산 윤 도진씨를 선출하고 정관 사업계획등 창립총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6월 7일 10시 30분 신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마치고 주무부 장관인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설립하게 된다.

연락 전화는 966-0310 48-3605 48-6141

축산 진흥회에 기술 협력단 창설

- 기술지도 사업위해 -

지난 5월 8일 함만준 축산진흥회장은 진흥회를 방문한 장덕진 농수산부 장관에 업무를 보고 하는 자리에서 축산 진흥회에 기술 협력단을 창설하여 일반 목장을 설립 운영등에 관한 기술 지도등 기술지도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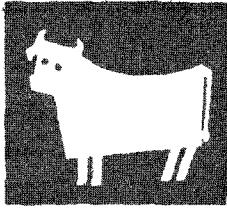
그 자리에서 우리 양계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최근 양축가의 가장 문제인 질병 퇴치 문제에 대한 사업을 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민간방역 대책 협의회 설립

- 현대양계사 주관으로 -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민간 주도형의 민간 방역 대책 협의회가 그간 모든 준비를 마치고 6월 20일경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커 이번 발족되는 협의회는 양축가의 큰 호응을 얻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사단법인체로 인가를 받아 질병 퇴치의 종주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농무성 사료곡물 사절단 래한

— 5월 16일 외교구락부에서 모임가져 —

사료곡물 사절단을 맞아 한국 사료 협회는 5월 16일 외교 구락부에서 상호 협안 및 의견 교환을 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사료 곡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의 입장이 되겠다고 말하고 현재 구입하는 물량이 충분하며 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사료 안정 기금을 적립하고 사료 공장에 옥수수 ton당 130\$ 공급해도 사료 공장의 이윤이 충분하며 재투자가 가능한지, 왜 실수요자가(end user)가 직접 구매치 않는지에 관하여 와 축산진흥회 발족 후 한국 사료 협회의 역할 등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 곡물 협회 이사이며 콘티넨탈의 Campbell 사장은 앞으로의 곡물 시세 전망에 대하여 77년 10월에 ton당 100\$ 이하로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고 특히 속맥이 가장 심각하여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 시장기능의 정부가 가격 조작에 개입하게 되어 식부 면적을 일부 제한하게 되었다. 옥수수 파종 시기인 현재 기후가 불순하여 옥수수 파종의 가장 늦은 시기인 5월 25일 까지는 옥수수를 파종 할 것인가 대두를 파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식부 면적은 전년보다 줄고 옥수수는 4~6% 줄든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옥수수는 세계 무역량의 50%를 미국이 점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국이 접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서 135\$ 정도로 유지될 것 같으며 현재 농가에서 재고량은 7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7%가 증가한 상태이다.

옥수수를 구입하는 방법은 대만은 과거에 너지 파동 때의 경험을 살려 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옥수수 공동 위원회에서 미국의 7 대 곡물 회사와 물량 공급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일본 농림성과 미 농무성 간에 물량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소련의 경우는 600~800만 ton 이상 수입할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를 위하여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격에 대하여는 “현재 시카코 선물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각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통신 정보를 직접 관여 분석하여 예측하여야 하며 대만도 미국에 현지 사무실을 두고 일본도 미국에 여러 회사가 직접 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시장의 생리를 한국에 앉아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앉아서 수입하면 시대는 지났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 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앞으로 1982년도에는 곡물 수요량이 현재 보다 5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를 생산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히고 또 미국은 한국의 사료 공장 시설 근대화를 위한 CCC 자금(신용보증 기금)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역은 미 사료 곡물 협회 한국지부장 박영인씨가 담당하였다.

축산업계 동향

축산회관 서초동에 건립예정

— 금년내로 강남구 서초동에 —

축산진흥회(회장 함만준)는 금년내로 강남구 서초동에 축산회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연면평 2,000평 규모의 회관건립을 위해 예산 15억원을 확보, 농수산부가 추진중에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년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짓게될 축산회관은 사무실로 사용되며 축산관계 단체도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업계 단신〉

○ 원종대(대성미생물 상무이사) 씨는 동아방송(D. B. S)에서 앞으로 9월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5시40분부터 5분간 방송되는 “새벽의 광장” 프로그램에서 양계 및 양돈분야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 일본 누마리지 베데트의 二宮健一 상무취체역은 이문부화장(대표 이창열)에서 지난 5월13일 수입한 호로조(guinea fowl)의 사양관리 지도차 내한하였다. 호로조는 특수한 방법으로 인공수정을 하여야 번식이 되는데 이 기술습득을 위해 이문부화장직원이 근시일내로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호로조는 현재 가금류중 고기맛이 좋은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로 관광호텔등에서 소비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박기환씨 출국...국내 감별사의 해외진출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감별사 박기환씨가 미국 암체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지난 5월5일 9시 KAL기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바이엘화학, 새로운 기재도입 및 신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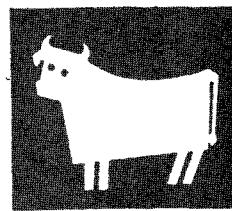
한국바이엘화학은 6월초 독일에서 최신 장비인 powder filling machine, Labeling machine을 도입 분말충진의 기계화 및 라벨부착작업등 일관작업시설을 갖추고 광범위 항생제 포르테실린, 판마이신수용산 펌피드 등의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포르테실린, 포르테실린 콤프Ⅲ 주사용 분말 항생제는 이미 동남아각국에서 많은 order를 받아놓았으며 판마이신은 타의 CRD, 빠다리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국내최초로 소개되는 항생제로서 6월초에 시판된다다고 한다.

同社는 이번 신제품 생산과 더불어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완전한 기계화설비를 갖추어 국내판매는 물론 제품수출에 더욱 활기를 띠게되어 금년도 수출목표인 60만\$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다.

정태원, 이필용, 고일혁, 유종래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당선... 지난 5월18일 실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업계에서 출마했던 정태원(서울중구지역: 홍성사료대표), 이필용(경기부천지구: 소신종제원대표), 고일혁(강원홍천지구: 일신부화장대표), 유종래(경북달성지구 대한양계협회이사)가 모두 당선되었다.

○ 한국가금처리원회가 사무실을 종로구 창신동 438-1 덕국빌딩 301호로 이전 전화 ⑤5637
○ 과학축산연구소 상호변경... 폴리태그등의 첨가제를 생산하는 과학축산연구소가 상호를 과학축산(대표: 이태일)로 변경



○ **축산기구사**(대표 : 고규락)은 최근 개스 육추기와 마렉백신주사기를 다양 입하하여 호평리에 발매중.

○ **김강식 축산국장 호주향발** : 김 강식 농수산부 축산국장은 오는 4월 시드니에서 열리는 한호통상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상오 9시 20분 KAL기편으로 호주로 떠났다.

김국장은 한호통상장관회의에 한국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뒤 뉴질랜드 및 자유중국에 들려 그곳 축산업현황을 시찰한뒤 오는 18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 **의정부 지역 대규모 채란업자 10명**이 금년도 3월부터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모임을 가져오다 지난 5월 18일 그명칭을 가칭 10인회로 하고 회장에 김창환씨를 선출하고 행동 통일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에게 낮익은 10入會회원을 보면 왕희재 윤승덕 주원술 주원일 이호장 안승태, 이문빈 재씨이다

○ **한국양돈협회**는 회원들에게 협회의 동정과 업계의 소식을 신속 전달하기위한 홍보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회보 제 1호를 발간했다.

인사

○ **S.F과학사료** : 최만영 (전 본회 경북지부총무) 씨를 경북지역 영업부사원으로 특채.

○ **대한제당사료부** : 남대현 (전 미원사료) 씨를 생산과장으로 특채.

○ **한국바이엘화학**

김창구씨 기획부 주임으로 특채.

정권경씨 (전 바이엘약품) 영업부주임
으로

박수경주임 (부산출장소) 6월 1일부 개발부로

박재운씨 경북대학수의과 졸 부산출장소 주재원으로

조규웅씨 수원바이엘 주재원으로

○ **대영농산** : 강근식 (제주대 축산과졸) 씨를 생산부에 특채.

○ **중앙약품**…노창섭 (전 광주낙협 수의사근무) 씨를 영업부에 특채.

이전변경

○ **한국양돈협회** (회장 : 박재근) 가 중구양동 44-28 축산회관 5층으로 사무실이전 전화 (22) 8734

○ **한국가금처리협회**가 사무실을 종로구 창신동 438-1 덕국빌딩 310호로 이전 전화 (53) 5637

전화안내

* **한국사료협회** 인천사무소 ⑦ 1548~9

* **양평계우회** (회장 손기정) 양평 657

* **삼양사** 수산부 (261) 0161

* **연일화점** 전화증설 43-6169

* **이화약품** 전화증설 64-8376

* 5월 27일부터 인천지역의 8국이 82국으로 변경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 **계유부화장** (대표 : 이재식) : (82) 4458

○ **신성부화기계작소** : ⑧ 4911

○ **경일정밀공업사** (부화기용온도조정기 제조업체)

인천공장 : (82) 5067

○ **인천계우회** : (82) 1854